

AI·디지털 과학탐구 지원사업 본격

전북교육청, 초·중·고교 121곳 선정... 20억원 투입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탐구 환경 조성에 나서며 미래형 과학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AI·디지털 과학탐구 지원 사업' 대상 학교 121개교를 선정하고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춰 탐구·실험 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탐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121개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교육 여건과 탐구활동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당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디지털 센서와 데이터

수집 장치, AI·소프트웨어(SW) 연계 탐구 교구, 스마트기기, 과학실 운영 기자재 등 학생들의 과학탐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교구 구입에 활용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 간 디지털 과학교육 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특히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하는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탐구 중심 과학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방향"이라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탐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25일 연수원 연화관에서 6급 핵심인재 양성 9기 교육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 전북교육 이끌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전북교육연수원, '6급 핵심인재 양성 9기' 공동정책연구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25일 연수원 연화관에서 6급 핵심인재 양성 9기 교육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과정 참여자들이 수행한 공동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교육이 직면한 미래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정책연구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실습 중심 연구 활동이다. 교육생들은 정책 기획부터 연구, 대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팀 단위로 수행하며 기획력과 협업 역량을 키워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아름다운 선율로 전한 공감 메시지... 장애인식 개선 공연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성료 학생·교직원 35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2026년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찾아오는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도내 8개 학교 및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350여명이 함께했다.

발달장애 예술인들로 구성된 어울소리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은 물론 학생들에게 친숙한 동요와 영화·애니메이션 주제가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특히 영화 '겨울왕국' OST인 '사랑은 열린 문'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물론' 등 익숙한 곡들을 오케스트라만의 풍성한 선율로 재해석해 큰 반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음악을 즐기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상반기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하반기 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2026년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찾아오는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개최했다.

연 신청을 받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감 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공연이 학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울소리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 예술인들의 우수한 예술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점 시동

구성원 대상 대응전략 공유, '브랜드단체·AI 거점대학' 의견 수렴 지역 성장엔진 기반 산학연 일체 교육·연구... AI 거버넌스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가 거점국립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북대는 24일 오후 3시 JBNU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과 이달 17일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에 대한 전북대의 대응 전략을 교내 구성원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의 추진 방안은 거점국립대를 권역별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해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 지능(AI) 거점대학'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선정 대학에는 5년3학기 공인대학 사업과 교육혁신 사업을 포함해 대학당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은 성장엔진이 확정된 후 3분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대가 선정될 경우 기존 사업비를 포함해 연간 약 1,268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사업

추진 방안 및 대응 전략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국립대학 육성사업)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 △AI 거점대학 등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전북대가 제안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의 주요 교육 혁신 사업계획이 폭넓게 소개됐다. 전북대는 우수교원 유치 및 지원 체계 확립, 전교생 대상 AI 기본교육과 AI 기반 교육지원 서비스 산학 일체형 현장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양·전공·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과 실무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향이 강조됐다.

그 일환으로 전공·진로와 연계해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산학연 협업 경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됐다. 이는 기존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학습자 중심의 몰입형 학습으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실무 능력과 현장 경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모형이다. 전북대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교육 모형 개발과 교수역량 강화, 성과 관리·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 발표에서는 학부·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잇는 일체형

육성 체계가 소개됐다. 전북대는 대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엔진분야를 특화 교육하는 학부와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신설·연계하고, 이를 연구 거점인 특성과 연구원과 묶어 교육에서 실증·연구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구상이다.

연구 거점인 특성화 연구원은 지역 성장엔진에 맞춰 로봇·모빌리티, 에너지시스템, 바이오·푸드테크 등 분야별 연구소를 두고,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산학협력 연구소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며 우수 인재를 학부부터 대학원·연구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됐다.

AI 거점대학 발표에서는 전북대 AI 거점대학의 운영 체계가 소개됐다. 전북대는 AI대학과 AI융합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재 교류(글로벌 협력), 지역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대학·교육청·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정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대학과 AI융합대학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성과확산을 통한 운영하는 전북대 AI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북대는 호남권 거점국립대로서 이번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분야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구성원의 참여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지원청-학부모회 협치형·소통 간담회 개최

전주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하고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5일 전주시 학부모회협의회와 함께 '2회 현장 속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진행한 청렴 소통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원 전주시 학부모회협의회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 5명과 체선영 전주교육지원청 교무장 교육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하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졌다.

또한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AI 시대, 수업의 본질 다시 묻다

도내 중등 수석교사 4명, 27일 '미래교육 콘퍼런스' 참여

전북 수석교사들이 전국 교원들과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한국교육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제16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에 전북 중등 수석교사 4명이 수업 나눔 강사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유초중등수석교사협회와 한국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융합교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석교사 수업 나눔 행사로, 수석교사와 현직 교사, 예비교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콘퍼런스는 'AI 시대, 수업의 본질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수석교사들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해 온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배움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전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혁선 수석교사(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가 행사 운영을 총괄하는 가운데, 중등 분야 수업 나눔 18개 코너 중 전북 수석교사 4명이 강사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업 나눔에 참여하는 교사는 △전라북도 수석교사(고산고·한국사) '제주 4·3의 기억: 평화와 화해의 여정' △이태원 수석교사(군산중앙여고·생명과학) '비비브 코딩 데이터 분석-네일 클리퍼를 찾아라' △이해숙 수석교사(익산부송중·국어) '읽기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권혁선 수석교사(한국기술부사관고) '법제와 토의' 등이다.

이들 수업은 역사·의식과 디지털 역량, 사회참여 리더십 등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폭넓게 담고 있다. 단순한 교수법 소개를 넘어 학생들이 수업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실제 사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국 교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학폭 문제, 치유·회복·교육 중심으로

전북교육청, 초·중·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를 처벌 중심에서 치유와 회복, 선도과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6일까지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14개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교 단위 또는 인접 학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35개 학교에서 5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학교폭력 유형과 대응 절차 등 사안 처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관계 재정립을 강조

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전면 도입하며 일상적 갈등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해결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로 통해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상적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